



예거 르쿨트르의 새로운 타임피스,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히든 트레저

'잃어버린' 세 가지 그림에 담긴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세 가지 타임피스

2021년, 예거 르쿨트르는 리베르소 탄생 90주년을 맞이하여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히든 트레저를 공개합니다. 새롭게 출시되는 세 가지 타임피스는 현대미술계에서 높은 명성을 얻고 있는 세 명의 거장, 귀스타브 쿠르베와 빈센트 반 고흐, 구스타프 클림트가 남긴 작품을 재현합니다.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처에서 오랜 기간 경험을 쌓아 온 그랑 퓨 에나멜, 미니어처 페인팅 및 기요세 기술이 집약되어 있으며, 특히 기요세 장식은 백 년이 넘는 기계를 사용하여 모든 작업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리베르소 트리뷰트 컬렉션은 작은 디테일까지도 1930년대 오리지널 스타일을 가장 근접하게 구현합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세 가지 타임피스는 섬세하게 표현한 기요세 배경을 통해 다이얼의 심플함을 강조합니다. 다이얼은 뒷면에 숨겨진 에나멜 작품의 컬러를 연상시키는 미스티 블루 또는 그린 컬러로 제작되며, 절제된 디자인은 미니어처 예술 작품의 풍부한 질감, 디테일 그리고 강렬한 대비 효과를 이끌어냅니다.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히든 트레저 3부작에서 예거 르쿨트르는 19세기 귀스타브 쿠르베의 사실주의를 시작으로 반 고흐의 후기 인상주의 그리고 구스타프 클림트와 비엔나 분리파의 표현주의와 실험적 정신까지 서양 미술사에 방점을 찍은 대표작을 시계 속에 담았습니다. 매뉴팩처의 전문가들은 뒷면에 높은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을 숨기거나 드러내는 리베르소만의 고유한 특성에서 착안하여 수십년 동안 자취를 감추었다가 최근에서야 다시 발견되어 진품 인정을 받은 매혹적인 세 가지 그림을 특별히 선택했습니다.



귀스타브 쿠르베 - *View of Lake Léman*(1876 년작)

1873 년, 고국인 프랑스에서 추방당한 귀스타브 쿠르베는 스위스 레만 호수(제네바 호수)의 브베(Vevey) 지역 근처에 정착했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해안가의 전경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호수 위로 구름과 햇살이 비치는 모습을 담아낸 그림에서 그곳의 아름다운 풍경과 분위기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히든 트레저에서 다이얼이라는 캠퍼스 위에 그림의 대부분을 재현한 예거 르쿨트르의 마스터 에나멜 장인은 섬세한 컬러 팔레트와 정교한 디테일을 통해 원본의 감동적인 분위기를 완벽하게 담아냈습니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그림은 눈부시게 빛나는 화이트 골드 케이스 그리고 미스티 그레이 블루 다이얼의 세련된 헤링본 기요세 텍스처와 황홀한 조화를 이룹니다.

빈센트 반 고흐 - *Sunset at Montmajour*(1888 년작)

1888 년 프랑스 남부에 터를 잡은 반 고흐는 새로운 스타일의 시각적 표현에 과감히 도전합니다. 일상적인 여름날 저녁의 모습을 그린 *Sunset at Montmajour* 는 새로운 방식으로 자연을 화폭에 담아내려 했던 반 고흐의 열정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프로방스 지역의 고유한 식생과 해질녘 온 대지를 질게 물들이는 풍부한 '황금빛' 색채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히든 트레저에서 예거 르쿨트르의 마스터 에나멜 장인은 원본에 표현된 압도적인 원근감과 반 고흐만의 고유한 붓 자국 그리고 *임파스토(impasto)*를 충실히 재현합니다. 선레이 패턴의 기요세 다이얼을 물들인 그린 에나멜은 그림을 가득 채운 황금빛 및 적갈색 색채와 우아한 대비를 이룹니다.

구스타프 클림트 - *Portrait of a Lady*(1917 년작)

Portrait of a Lady 는 오스트리아 빈 출신의 구스타프 클림트가 생을 마치기 한 해 전에 완성한 작품으로, 자신이 완성한 작품 위에 다시 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이중' 자화상입니다. 클림트가 열렬히 사랑했던 한 여성은 그에게 수많은 영감을 안겨 주었지만 갑작스레 죽음을 맞이했고,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는 여인의 자화상을 다른 여성의 그림으로 뒤덮었습니다.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히든 트레저의 케이스 뒷면을 장식한 미니어처 버전의 *Portrait of a Lady* 는 클림트가 보여준 몽환적인 화폭을 고스란히 옮겨 놓았습니다. 그린 컬러의 배경 위에 여인의 우아한 자세와 세련된 의상을 작은 디테일까지도 완벽히 재현해내 원본과 같은 깊이 있는 일루전을 펼쳐냅니다. 섬세한 발리콘 기묘세 패턴 위에 그랑 퓨 에나멜을 장식한 그린 다이얼은 은은하게 빛나는 자화상의 배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에나멜링 - 유구한 역사를 지닌 예거 르쿨트르의 전통

그랑 메종이 계승하고 있는 유서 깊은 에나멜링 기법의 기원은 1890 년대에 출시된 포켓 워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케이스 뒷면에 에나멜을 장식한 것으로 알려진 최초의 리베르소는 1936 년 고객의 주문을 받아 탄생한 작품이었습니다. 당시 시계의 뒷면에는 마하라니로 추정되는 인물의 초상화가 정교하게 새겨졌습니다.

1990 년대에 자체 에나멜링 아틀리에를 설립한 예거 르쿨트르는 현재까지 자체 에나멜링 아틀리에를 보유한 몇 안 되는 매뉴팩처 중 한 곳으로 남아 있으며, 1996 년 이후 리베르소 케이스 뒷면의 작은 공간에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거장들이 남긴 작품을 충실히 재현해오고 있습니다.

시계 케이스백에 에나멜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까다로운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에나멜 장인은 원본 화가처럼 그림의 도안을 떠올려야 하지만 시계 다이얼이라는 공간적인 제약과도 맞서 싸워야 합니다. 여기에 원본 그림과 정확히 일치하는 컬러까지도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에나멜 안료의 특성상 가열 후 어떤 컬러로 나올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기에 오로지 그간의 오랜 경험에 비추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히든 트레저에 귀스타브 쿠르베와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옮겨 놓는 과정에서 특히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두 화가 모두 캔버스 위에 우뚝 솟아오를 만큼 두꺼운 붓 자국을 남기는 특유의 강렬한 *임파스토(impasto)*를 사용했습니다. 에나멜로는 이러한 특징을 재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에나멜 장인들은 착시를 연출해야만 했습니다. 한편 은은하게 빛나는 그랑 퓨 에나멜은 캔버스를



장식한 유화 그림에 놀라운 마법을 펼쳐냅니다. 에나멜 표현을 살짝 기울이면 빛이 더해져 예상치 못한 깊이와 뉘앙스가 드러납니다.

기술 사양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히든 트레저 - 쿠르베

케이스 소재: 화이트 골드

케이스 크기: 45.6 x 27.4mm

케이스 두께: 9.73mm

무브먼트: 매뉴얼 와인딩 -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22/2

기능: 시, 분

파워 리저브: 42 시간

방수: 30m

다이얼: 헤링본 기요세 및 그랑 퓨 에나멜

케이스백: 폐쇄형 - 그랑 퓨 에나멜

스트랩: 블랙 앨리게이터 가죽

제품 번호: Q39334C2

리미티드 에디션: 10 피스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히든 트레저 - 반 고흐

케이스 소재: 화이트 골드

케이스 크기: 45.6 x 27.4mm

케이스 두께: 9.73mm

무브먼트: 매뉴얼 와인딩 -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22/2

기능: 시, 분

파워 리저브: 42 시간

방수: 30m



다이얼: 선레이 패턴의 기요세 및 그랑 퓨 에나멜

케이스백: 폐쇄형 - 그랑 퓨 에나멜

스트랩: 블랙 앨리게이터 가죽

제품 번호: Q39334V1

리미티드 에디션: 10 피스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히든 트레저 - 클림트

케이스 소재: 화이트 골드

케이스 크기: 45.6 x 27.4mm

케이스 두께: 9.73mm

무브먼트: 매뉴얼 와인딩 -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22/2

기능: 시, 분

파워 리저브: 42 시간

방수: 30m

다이얼: 발리콘 기요세 및 그랑 퓨 에나멜

케이스백: 폐쇄형 - 그랑 퓨 에나멜

스트랩: 블랙 앨리게이터 가죽

제품 번호: Q39334K1

리미티드 에디션: 10 피스

리베르소 소개

1931년, 예거 르쿨트르는 20세기의 클래식 디자인이 된 타임피스인 리베르소를 출시했습니다. 격렬한 폴로 경기를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시계는 아르데코 라인과 독특한 회전 케이스의 디자인으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아이콘 모델이 되었습니다. 90년이 흐르는 동안 정체성을 고스란히 간직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 리베르소는



5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가 탑재되었으며, 메탈 소재의 빈 다이얼 뒷면은 에나멜링과 인그레이빙 또는
젬스톤으로 장식할 수 있어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캔버스가 되어 주었습니다. 2021 년, 90 주년을 맞이하는
리베르소는 현대적인 스타일에 영감을 얻어 계속해서 새롭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jaeger-lecoultre.com